

# 증권사 자산건전성 ‘착시효과’… 부동산PF 최종 손실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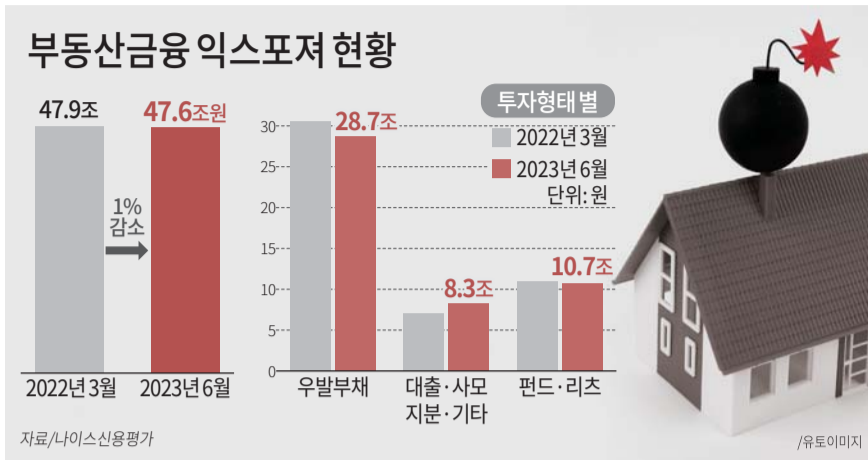
부동산PF 손실 확대 가능성 높아  
25개 증권사의 국내외 위험노출액  
올 6월말 기준 약 47조6000억 달해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전성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인 리스크를 감안할 시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25개 증권사의 국내외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약 47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영업이 전무한 수준이었음에도 지난해 3월말(47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PF 만기가 연장되는 등 기존 투자분의 익스포져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건전성지표 기준상으로 집계했을 때,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의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리스크를 모두 고려할 시 최종손실 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예리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현재 증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상당한 착시효과가 반영됐다”면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 상당부분이 만기연장되고 있으며, 펀드 등 형태의 투자는 건전성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인 요인



을 감안할 시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이었던 국내 PF 익스포져 5조 2000억원 중 약 73%(브릿지론 약 80%, 본PF 약 56%)가 만기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브릿지론 대부분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됐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의 경우에도 관련 시장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이었던 2조 6000억원 중 약 90%가 만기연장됐다.

이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최종 손실발생사태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 평가손익·대손적립액과 달리 익스포져 회수가 발생하는 만기 시점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 총당금 적립 수준, 평가손실 인식 등에 비해 만기 시 실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잠재부

실가능 여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주의이하여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터질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국내 부동산 PF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해외 부동산 PF도 선순위에서 담보권을 먼저 처분하는 등의 리스크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선순위부터 중순위, 후순위가 존재하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중후순위 및 지분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

특히 초대형사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경상적으로 창출하는 수익 규모가 많아 손실을 충당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소형사와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해온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감내가능한 손실규모가 적다고 평가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유럽 지역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공략

SK에코플랜트-포스코인터내셔널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력

SK에코플랜트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전방위 협력을 통해 유럽 지역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서울 중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재생 페트칩(r-PET Chip) 등 고품질·고부가가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유럽 지역 판로 개척에 적극 협력한다.

재생 페트칩은 재생페트 및 섬유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고부가가치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다. 폐플라스틱 조각을 고온에 녹인 뒤 뽑아낸 균일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향후 SK에코플랜트가 국내에서 재생 플라스틱 제품 종류 및 생산량을 확

대해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글로벌 판로 개척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인 DY폴리머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재생 페트칩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독점 공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유럽 지역 고객사에 공급하는 재생 페트칩은 DY폴리머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품질 재생원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불순물 제거나 균일한 소재 생산을 위해 별도 설비도 갖출 계획이다.

권지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코BU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유럽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재생 플라스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조경 케어’ 받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

DK아시아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소속 나무의사를 통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을 특별하게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 조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 최대 수준의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조경 진단부터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하게 됐다.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나무병원에 등록된 나무의사는 4명으로 나무의사들은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나무의사들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수목과 조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수목의 생육상태를 진단한다. 수목들이 조기에 원활하게 활착(活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목



나무의사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목 관리를 위해 진단을 하고 있다. /DK아시아

의 고사(枯死)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된 480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곳곳에는 140만 주의 꽃과 다양한 테마 숲, 사초류와 초화류 그리고 억새류가 만 들어가는 특화 공간 등 아파트 부지의 약 40% 공간이 조경으로 꾸며져 있다. /김대환 기자

## 로봇주 고공행진에 관련 ETF도 ‘상승세’

대기업 사업 진출에 호재 작용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  
주가 상승흐름 지속될 것 예상

2차전지,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로봇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봇 관련 ETF의 순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로봇 관련 ETF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에스피지 등을 일부 담고 있는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는 9.20% 뛰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등을 담고 있는 KODEX K-로봇액티브ETF는 7.20% 올랐으며, 로봇 등 5개 기술 테마에 투자하는 SOL KEDI메가테크액티브는 1.28% 상승했다.

로봇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 ETF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일주일간 스맥(63.98%), 레인보우로보틱스(50.51%), 에스비비테크(34.74%), 티로보틱스(14.84%), 휴림로봇(3.16%) 등 로봇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다.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의광장에서 열린 '제1회 과천시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에서 로봇댄스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삼성·한화·두산 등 대기업이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것이 로봇주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다음달에 협동로봇 기업 한화로보틱스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두산그룹의 로봇 계열사 두산로보틱스의 상장도 투자심리에 불을 지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달에 청약용 거처 다음달에 상장할 예정이다.

로봇 관련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금 유입으로도 이어졌다. 코스콤 ETF 체크(CHECK)에 따르면 이달간 KODEX K-로봇액티브는 461억원,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에

는 16억원이 유입됐다. 대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사업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 로봇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증권업계도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로봇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로봇 ETF는 중장기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공개와 로봇 관련 정책 공개(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및 지능형로봇법 등 개정안 시행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에셋 ‘아마존 풀필먼트 물류센터’ 투자

뭄바이 지역 위치... 280억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인 뭄바이 지역에 위치한 약 4만6450㎡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투자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비완디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를 약 210억원에 직접 투자한 후 성사된 두 번째 딜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280억원 규모로 투자한 물류센터는 ‘아마존 풀필

먼트 물류센터’로 인도 내 1위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AMAZON)의 물류센터다. 뭄바이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아마존 풀필먼트 물류센터 중 하나로, 인구 2000만명의 경제 수도 뭄바이의 핵심물류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비완디는 뭄바이 외곽에 위치한 핵심 물류거점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며 글로벌 대기업들의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다. /원관희 기자